

수능 문학의 비밀

수능 문학의 비밀

반갑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유성입니다.

앞선 비문학 기본서 「국잘알」 그리고 고난도 기출 분석서 「고비끝」에 이어 이번에는 문학 기본서 「수능 문학의 비밀」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전자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책에 대해 좋은 후기를 남겨주시고 문학 기본서를 기다려주신 탓에 저도 힘을 내서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성원을 보내주신 분들께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문학 영역은

몇 가지 평가원의 코드를 알고 있는 채로 연습을 해야 실력의 변화가 있는 영역입니다. 단순한 양치기로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공부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방식으로 평가원의 코드 및 문제 해결 도구를 발견해내고 이를 적용하며 양치기를 진행해야 비로소 성적이 상승한다는 말이지요.

이 책은 그러한 평가원의 코드와 문제 풀이 도구를 압축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한 포지션에 있습니다.

부디 30p 내외의 글을 정독하시고, 스스로 요약해본 다음, 기출문제 풀이에 적용해보세요. ‘과연 저자 네 말대로 이 도구들 적용하면 다 풀려?’라는 의심을 가진 상태로요. 이 과정에서 문학 실력이 가파르게 성장할 것입니다. 결국 수능장에서도 이 도구를 활용하여 문학 문제를 맞혀내게 되겠지요.

「수.문.비」 가독성을 위해서 여백이 있는 칼럼 형식으로, 반말투로 작성되었습니다. 혹시 기분 나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에 관한 질문 사항, 문학 기출이 생기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카톡 오픈 프로필 검색: 오르비 유성국어

꼭 책에 관하지 않더라도 괜찮구요. 오탈자/오류에 관한 제보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와 함께 수능 문학을 뽀개러 가봅시다!!

※이 책은 문학 문제 풀이 도구를 컴팩트하게 정리한 책입니다.
문학 개념어나 고전시가 필수 개념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수능 문학의 비밀

선지 판단의 비밀

✓ 명시적인 기준을 갖고 판단하라

많은 학생들이 선지 판단을 할 때 다음과 같은 말들을 종종 하곤 한다.

“3번 아니면 4번 같은데... 답 결정을 못하겠어요.” “감으로 찍어서 맞긴 했는데, 솔직히 왜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선지가 옳다고 할 근거가 어디 있죠? 문학 진짜 X같네.)”

이러한 말들이 생기는 이유는?

애매함

맞다. 문학은 참 애매한 영역이다. 항상 2~3개의 선지가 남아 괴롭힌다. 더 중요한 건, 여기서 시간이 아무리 많이 주어진다 해도 정답을 맞힐 자신이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문학 선지를 판단하는 객관적이고 명시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 선지는 이러이러해서 틀렸고, 이 선지는 이러이러해서 적절하다는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 기출분석을 하며 귀납적으로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부분이다. 수많은 평가원 문학 기출들을 풀어가며 스스로 기준을 찾아야 한다.

BUT

우리는 효율적 학습을 하기 위해 이 책을 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냥 내가 먼저 기준을 세워주겠다.

- ① 주제를 토대로 의심하기
- ② 견덕지로 검증하기
- ③ 상대적 적절성

당신이 할 일은, 귀납적으로 기출을 학습하며 기준을 세우는 게 아니라 연역적으로 이 기준을 기출에 적용해보며 과연 내가 말하는 이 기준이 정말 적용이 잘 되는지 점검해보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내가 세워준 이 기준이 잘 들어맞음을 깨닫고, 문학 판단이 명확해지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럼 기준 하나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겠다.

① 주제를 토대로 추론하기

선지를 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3요소를 읽어내며 파악한 주제를 바탕으로, 선지를 의심해내는 거다. 이때

**“주제 상
그런 내용이 정말 지문에 있을 만한지”**

를 생각해볼 수 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읽어보니, 주제 = <임에 대한 사랑>

- ① ~을 통해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을 통해 출세에 대한 욕구를 표출하고 있다.
- ③ ~을 통해 속세에 대한 미련을 보이고 있다.
- ④ ~을 통해 대상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 ⑤ ~을 통해 인물들 사이에 일어나는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주제를 바탕으로, 선지 별로

그런 내용이 정말 지문에 있을 만한지

생각해보자. 이때 지문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는다. 그냥 주제를 토대로 그런 내용이 있을 만한지 판가름해보는 것이다.

②: 주제가 <임에 대한 사랑>인데, 지문에 ‘출세에 대한

수능 문학의 비밀

종합 연습

이제 앞서 배운 내용들을 모두 적용하여 오답률이 꽤 높았던 지문 2개를 풀어보자. 일단 혼자서.

(가)

흙이 풀리는 내음새

강바람은

산짐승의 우는 소릴 불러

㉠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멍울멍 떠내려간다.

진종일

나룻가에 서성거리다

행인의 손을 쥐면 따듯하리라.

고향 가차운 주막에 들러

㉡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라.

양귀비 꽃여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지운다.

간간이 쟈나비 우는 산기슭에는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설레는 바람이 가랑잎을 휩쓸어간다.

예제로*떠도는 장꾼들이여!

상고(商賈)하며 오가는 길에

㉢ 혹여나 보셨나이까.

전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내음새……

-오장환, <고향 앞에서> -

(나)

귀향이라는 말을 매우 어설피하며 마당에 들어서니 다리를 저는 오리 한 마리 유난히 허둥대며 두엄자리로 도망간다. ㉡ 나의 부모인 농부 내외와 그들의 딸이 사는 슬레이트 흙담집, 겨울 헤어림의 ㉢ 집 안엔 아무도 없고 방바닥은 선뜩한 냉돌이다. 여덟 자 방구석엔 고구마 뒤주가 여전하며 벽에 메주가 매달려 서로 박치기한다. 허리 굽은 어머니는 냇가 빨래터에서 오셔서 콩깍지로 군불을 피우고 동생은 면에 있는 중학교에서 돌아와 반가워한다. 닭똥으로 비료를 만드는 공장에 나가 일당 서울 광주 간 차비 정도를 버는 아버지는 한참 어두워서야 귀가해 장남의 절을 받고, 가을에 이웃의 텃밭에 나갔다 팔매질당한 다리병신 오리를 잡는다.

-최두석, <넓은 집> -

*예제로: 여기저기로.

1. (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화자는 낯선 행인에게서 친근감을 기대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익숙했던 공간에 들어서며 낯선 느낌을 받는다.
- ② (가)의 화자는 아직도 조상의 권위가 지속되는 공간을, (나)의 화자는 여전히 가난이 지속되는 공간을 벗어나고자 한다.
- ③ (가)의 화자는 세상이 변해도 각박한 인심이 여전함에 좌절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세상이 변해도 인심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떠돌아다니는 자신의 처지를 통해, (나)의 화자는 공장 노동자로 전락한 농민의 처지를 통해 삶의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의 화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농촌의 모습이 보존되기를 희망하고, (나)의 화자는 산업화를 통해 농촌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희망한다.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계절이 바뀌면서 얼음이 풀리는 강변 풍경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② ㉡: 꿈이 있던 시절을 함께 회상할 사람이 없는 아쉬움을 설의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 이리저리 떠돌며 고향에 가지 못하는 장꾼들의 설움을 독백조로 토로하고 있다.
- ④ ㉡: 가족의 일원이면서도 자신의 가족을 객관화하여 지칭하고 있다.
- ⑤ ㉢: 썰렁한 집 안의 정경 묘사를 통해 화자가 느끼는 심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수능 문학의 비밀

〈보기〉

장끼전은 ‘까투리’를 중심으로 남존여비와 여성의 개가금지 같은 가부장제 사회의 문제를, ‘장끼’를 중심으로는 몰락 양반의 삶과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다양한 변화상을 형상화했다. 이 대목은 가족의 생계 문제를 걱정하는 몰락 양반의 출현과 향촌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신흥 부호의 생활상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신흥 부호의 위세로 인해 빛어지는 신흥 부호와 몰락 양반의 갈등, 그리고 신흥 부호를 둘러싼 몰락 양반 간의 불화를 그려 내고 있다.

☞ 지문에 몰락 양반 간 갈등, 몰락 양반과 신흥 부호 간 갈등이 드러나겠다. 이에 집중해서 읽어보자.

‘콩알 하나 없으니 주린 **치자**를 어이할꼬? 어떻게든 협사촌의 **서대주**가 **도적**들과 아래위 **낭청**을 다니며 함께 **도적**하여 부유하다 하니 찾아가 **얻어 보리라.**’

하고 **협사촌**을 찾아간다. 허위허위 이 산 저 산 어정어정 걸어가며 생각하되,

☞ 일단 화자의 상황/심리는 ‘가난→난처’인가 보다. 그래서 부자인 서대주(=협사촌)를 찾아가 돈을 얻으려는 듯해. 아마 서대주는 신흥 부호,

✓ 인물 연결-구분에 유의한다.

고전소설은 같은 인물인지 다른 인물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 이전에 언급한 인물과 같은 인물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하면서 인물 파악에 유의하자. 여기서 서대주=협사촌을 읽어냈어야 한다. 물론 이들이 정말 동의어인지는 몰라도 된다. 맥락상 같은 의미로 쓰인다는 것만 파악하면 된다.

‘이놈이 본디 큰 쥐로 도적질하는 놈이니 무엇이랴 부를꼬? **쥐**라 해도 좋지 않고, **서대주**라 해도 좋지 않으니, 이놈 부르기 어렵구나. 어떻게 대접함이 으뜸이라.’

☞ 서대주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까 어려워하고 있어. 어쨌든 대접하려 심리를 가지네.

길을 재촉해 협사촌을 찾아 서대주 집 문 앞에서 **장끼** 큰기침 두 번 하고,

“**서동지** 계시오?”

☞ 지금까지 ‘화자=장끼’였나보다. 서대주=협사촌=서동지일 거야.

하며 찾으니, 이윽고 **시비** 쥐 나오거늘 **장끼** 문왈,
“이 **댁**이 아래위 **낭청**으로 다니며 관리하시는 **서동지** **댁**

이오?”

물으니 **시비** 답왈,

“어찌 찾으시오?”

장끼 가로되,

“잠깐 **뵈오리다.**”

이때 **서대주** **자녀**의 재미 보며 **아내**와 함께 있더니, **시비** 와서 왈,

“문전에 어떤 **객**이 왔으되 위풍이 **현앙(軒昂)***하고 빛갓 쓰고 옥관자 붙이고 여차여차 **동지** **님**을 뵈러 왔다 하나이다.”

☞ 시비 쥐는 아마도 서대주의 하인인 듯해.

✓ 계속해서 인물 정보를 파악한다.

인물은 반드시 추출해야 할 핵심 정보인 3요소 중 하나였다. 시비 쥐 또한 하나의 인물이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주며 읽어야 한다.

✓ 각주는 반드시 본다.

어떤 지문을 보든 *표시가 있다면 반드시 지문의 끝에서 각주를 살펴 봐야 해. 이 뜻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

서대주 **동지**란 말을 듣더니 대희하여 외현으로 청하고, **정주(頂珠)** **탕건** 모자 쓰고 **평복**으로 나아가 **장끼**를 맞아 예하고 자리를 정하니, **장끼** 하는 말이,

“**댁**이 **서동지**라 하시오? 나는 양지촌 사는 **화충**이라고도 하고, 세상에서 부르기를 **장끼**라고도 혹 **평**이라고도 하는데, **귀댁**을 찾아 금일 만나니 구면처럼 반갑소이다. 한 번도 뵈 **적** 없으나 **평안**하시었소?”

서대주 **맹랑**하다. **탕건**을 어루만지며 답왈,

“**존객**의 이름은 높이 들었더니 **나**를 먼저 찾아 **누지**에 와 주시니 **황공** 감사하오이다.”

장끼 답왈,

“서로 찾기에 **선후**가 있는 것 아니니 아무커나 반갑다 못하여 **진저리** 나노라.”

하거늘 **서대주** 웃으며 온갖 음식으로 대접하고 **고금사**를 문답하며 **장끼**를 조롱하며 벗하더니, **장끼** **콧소리**를 내며 말하기를,

☞ 장끼가 예를 차려니 서대주와 사이는 일단 좋아 보이네.

“**서동지**께 **청할** 말이 있노라. 내 본시 **넉넉지** 못해 오늘까지 먹지 못하다가 처음 **청하**운데 **양미** **이천** **석만** **빌려** 주시면 내년 가을에 **갚으리**니 **동지** **님** **생각**에 어떠시오?”
서대주 웃으며 하는 말이,